

두산아트랩 공연 2024 ①

윤상은 메타발레: 비(非)-코펠리아 선언

무용

1.11(목)~1.13(토) 목금 8시 / 토 3시

퍼포먼스 50분

*아티스트 토크 1.11(목), 1.13(토) 공연 후

아티스트 토크는 두산아트센터 팟캐스트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www.podbbang.com/dh/7508

안무노트

<메타발레: 비(非)-코펠리아 선언>은 2023년 총 3차례 진행된 워크숍 <모든 몸을 위한 발레 워크숍>의 결과 발표다. (2월 삼일로창고극장 스튜디오/3월 서울무용센터/8월 전문무용수지원센터 마루)

"발레로 즉흥 할 수 있을까"라는 단순한 질문으로 시작한 이 워크숍에는 발레와 움직임에 관심 있는 다양한 참여자들이 모였고, 가이드가 제시하는 발레에 자신의 움직임을 더해보는 시간이었다.

발레를 전공한 나에게 발레는 어떤 고정된 이미지로 몸과 마음에 남아있다. 그것을 타파하고자 오랜 세월 발레를 멀리했다. 그런데 참여자들에게 발레는 그저 호기심이었고, 애초에 발레에 어떤 권위도 부여하지 않았다. 동작이 잘 안돼도 그냥 웃어넘길 수 있었다. 그게 이 워크숍의 핵심이었던지도 모른다. 웃고 떠드는 동안 시간이 흘렀고 발레를 재미로 하는 게 드디어 나에게도 가능해졌는지 모른다.

발레 작업을 6년째 이어가고 있는 나에게 친구가 물었다. "너는 왜 닿을 수 없는 두 개를 굳이 연결하려고 해?", 나는 "노력하면 언젠가 맞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대답한다. 발레 작업을 하면서 들었던 수없이 많은 질문, "발레를 그냥 안 하면 되지 않냐" 하지만 발레를 놓고 싶지 않은 걸.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 걸. 두 사이를 빠르게 왔다 갔다 한다. 발레와 발레 아닌 것 사이를.

윤상은 안무가

무용 <죽는 장면> <늘어난 사랑(Stretched Love)>
<코펠리아-입을 다문 존재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 같아> 외

*참조: 이유라이미라 <올바른 발레용어>, FLOORWORX(2021)

같이 쓰는 <비(非)-코펠리아 선언문>

나는 '보기 위한 발레가 아닌' 하기 위한 발레를 한다.

나는 몸과 마음을 혹사하며 발레하지 않는다.

나는 무리하지 않고 발레를 하기에 입맛이 좋아져 발레를 하면 할수록 살이 붙는다.

나는 발레 턴을 할 때에 사방팔방 이곳저곳 다 보며 빙그르르 돈다. 우리의 턴은 어지럽다.

나는 왕자를 사랑하지만 공주도 사랑한다.

나는 백조가 아니라 **알바트로스*다.

나는 발레를 하는 와중에 딴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발레가 끝나고 인스타에서 찾은 맛집에 갈 생각을 하고 전에 사둔 바이오 주식을 팔 생각을 하고, 페미니즘 집회에 나갈 생각을 한다.

나는 미래의 완성을 위해 순간을 깎아내지 않는다. 바들거리는 다리에 수직심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지금 뿐인 떨림에 집중한다.

나는 같은 각도의 날개짓을 수 천 번 연마하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는 멈춰있는 코펠리아 인형에 생명을 불어넣는 존재들이다.

*주로 북태평양에 서식하는 신장용과 습새목의 조류로 비행이 가능한 조류 중에서 날개가 가장 큰 종

두산아트랩은 관객 여러분의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공연 관람 후 온라인 관객 설문에 참여해 주세요.

작성해주신 의견은 창작자에게 전달되어

작품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 [관객 설문 바로가기\(링크\)](#)

작품 속 발레용어(등장 순)

- 투르네(Tourne): 회전하는 발레 동작의 통칭
- 앙 디올(En Dehors): 축의 다리 바깥쪽 방향으로 도는 회전
- 앙 드당(En Dedans): 축의 다리 안쪽 방향으로 도는 회전
- 아라베스크(Arabesque): 한 다리로 서서 발란스를 잡고 다른 다리를 뒤로 뻗는 포즈
- 발롱(Ballon): 뛰어오르는 모습을 가리키는 용어
- 앙부아떼(Emboîté): 한쪽 다리씩 번갈아 가며 점프하는 동작
- 소떼(Sauté): 두 발로 뛰어서 두 발로 착지하는 점프 동작
- 시손 우베르(Sissonne Ouverte): 두 발로 뛰어서 한 발로 착지하는 점프 동작
- 아쌍블레(Assemblé): 한 발로 뛰어서 두 발로 착지하는 점프 동작
- 파세(Passé): 한 다리로 서서, 다른 다리의 발끝을 선 다리의 무릎까지 끌어올린 자세
- 프로미나드(Promenade): 중심축 발의 발꿈치를 살짝 떼며 도는 동작
- 앙 호(En Haut): 머리 위에서 두 손을 모아 동그랗게 만든 자세
- 스트뉴(Soutenu): 두 다리를 모아 회전하는 동작
- 그랑 바트망(Grand Battement): 한 다리를 최대한 높이 공중에 던지듯 차는 동작
- 플리에(Plié): 한쪽 또는 양쪽 무릎을 구부려 몸의 중심을 낮추는 동작
- 피루엣(Pirouette): 한 발을 축으로 도는 동작
- 그랑 플리에(Grand Plié): 양쪽 무릎을 많이 구부려 거의 앉는 동작
- 왈츠(Waltz): 3박자 카운트에 맞춘 발구르기 동작
- 빠 드 브레(Pas de Bourrée): 3개의 연속 스텝을 이용해 진행방향으로 움직이는 동작

드라마터그 노트

귀족적 애티튜드, 문법적 움직임, 왕관과 분칠, 구태한 서사, 백인중심주의, 엘리트즘, 마른몸 이상화, 차이코프스키. 무엇이 과거이고 무엇이 현재인가. 우리 시대의 발레에는 무엇이 사라지고 무엇이 남았는가. 또한 무엇이 사라져야 하고 무엇이 남아야 하는가. 무엇이 껌데기고 본질인가.

춤은 사람의 몸에서만 존재한다. 사람의 몸은 소멸하고, 창조된다. 끊임없는 생과 사의 반복 속에서, 과연 사람의 춤 또한 발맞춰 재창조되고 있는지, 발레를 추면서도 15세기 유럽 왕궁에서 태어난 춤에게 영생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묻고 싶었다. 발레는 '클래식'이라는 맹목 하에 고질적 실패를 되풀이하는 박물관 속 고전 유물이 되는 것이 운명이 아닐까? 우리 시대만의 올바른 발레는 없을 것이라는 명제에 마침표를 찍어야 할지, 혹은 우리가 클래식에 대한 도그마에 둘러싸여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이 작품은 이러한 물음에 대한 고찰에서 시작했다.

물론 이와 같은 의식, 내지 사망감이 최초는 아니다. 쿼터적으로 재해석된 작품 매튜본의 <백조의 호수>, 은퇴를 앞둔 만년 군무 발레리나의 렉처형 발레 <베로니크 드와노>, 인종차별적 문제 개선을 위해 중국 춤 장면을 수정한 조지 발란신의 <호두까기인형> 등 발레계는 구시대가 부여한 권위에 심 없이 대항해왔다. 나는 <메타 발레: 비(非)-코펠리아 선언>을 위 작품들과 같은 선에 두고 오롯한 발레를 향한 우리의 탐사라고 말하고 싶다.

이 작업은 발레와 가깝고 멀어지는 실험을 통해 춤의 골격을 드러내고, 해체하고, 조합했다. 그러면서 쉬이 떨어지지 않는 위엄의 껌데기를 마침내 벗겨내도록 했다. 이렇게 발레 속에서 비로소 '오늘날의 우리'를 발견한다. 그렇다고 해서 발레를 전복시키려는 것은 아니다. 오래된 춤에 대한 애증 속에서 우리가 가꾸어야 할 발레를 다시금 사랑하고자 하는 것이다. <메타발레> 여정을 통해 발레와 비-발레 사이 어디쯤 잠자고 있는 발레에 숨을 불어넣기를.

손예은 드라마터그

음악 출처

La Bayadere (라 바야데르)
Evergreen Symphony Orchestra, Kevin Galie
Act II: 35. "Entrance and Variation - Nikiya"
Act II: 36. "Variations Nikiya, Snake, and Finale"
작곡: Ludwig Minkus

Prélude à l'après-midi d'un faune (목신의 오후 전주곡)
Berlin Philharmonic Orchestra, Claudio Abbado
작곡: Claude Debussy

무용 <메타 발레: 비(非)-코펠리아 선언>

기획 두산아트센터
움직임 가이드 및 안무 윤상은
움직임 창작·출연 김혜인, 신민, 이가경, 이민진,
임다운, 지혜경, 최윤희
드라마터그 손예은
작곡·연주 한정원
조명디자인 성미림
조명 크루 강민지, 김휘수, 박자연, 홍주희
영상·음향 감독 임기택
영상·음향 크루 김연수
무대감독 김영주

Special Thanks to
정옥희 선생님, 이설애, 임가영
그리고 역대 <모든 몸을 위한 발레 워크숍> 참여자들

Contact
Instagram @death_scene_ballare

[두산아트랩 공연 2025 공모 안내]

일정 2024.6.10~7.10

대상 40세 이하, 한국 국적 예술가,

장르 제한 없음

*자세한 내용은 추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두산아트랩은 40세 이하 젊은 예술가들이
새로운 작품을 실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참고자료)

<제 4장. 발레와 발레 아닌 것> 대본

저출생

요즘 저출생이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그런데 저는 왜들 그렇게 심각하게 구는지 모르겠어요. 국가 소멸. 그게 뭐 어때서요? 저출생, 저출생 거리지만 아직도 그게 출산을 하지 않는 여성들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직장에서는 출산 계획이 있는 여성들을 차별하고, 지하철 임신부 배려석에 아저씨들이 뻔뻔하게 앉아서 가는데. 우리는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지옥에서 아이 낳고 싶겠어요? 당연한 결과를.. 마치 재난처럼 보도하는 이 상황, 저는 좀 웃긴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아이는 꼭 낳고 싶어요. 딱 한 명. 그것도 딸로. 돌아서면 남이 되는 그런 거 말고, 피로 맺어진 인연을 갖고 싶어요. 근데 무용을 업으로 하고 있다 보니 10개월의 임신, 출산 그리고 육아를 제 일과 병행.. 불가능하겠죠. 저는 그게 너무 두려워요. 제 몸과 마음이 그 과정을 버텨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둔한 감정

저는 감정이 둔한 편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어떤 판단을 할 때 감정이 거의 개입하지 않는 편인데...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살면서 겪은 가장 중요한 사건이나 큰 문제들은 다 감정 때문에 일어난 것이더라구요. 그렇다면 감정이 어떤 방식으로든 제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 발레에서도 감정 표현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지젤> 같은 작품을 보면 주인공이 슬퍼하거나 미치거나 그런 격한 감정들을 표현해야 하는데.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작품보다는 발라신의 줄거리 없는 추상 발레가 더 이해가 잘 되거든요. 이걸 이해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인물의 감정선보다는 무용수의 몸이 만들어내는 형태 그 자체를 보는 게 더 좋아요. 이런 저의 취향도 제가 감정이 둔한 것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테슬라

테슬라사 로봇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하던 노동자를 벽으로 밀치고 금속 집게발로 등과 팔을 찔렀다고 나오대요. 공장 바닥에 피가 흥건했다고. 시상에. 테슬라 측은선 로봇의 오작동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테슬라에서 이런 사고가 비밀비재했더라구요. 제조공장 로봇이 노동자를 공격하는 사건들이! 이게 다 기업들이 무인화해서 그런 겁니다. 그들은 로봇을 좋아해요. 로봇은 노조도 안 만들고 파업도 안 하니깐! 로봇이 조리한 음식에선 머리카락이 나올 일이 없으니까!!! 근데 이거 보라고요. 로봇들이 인간을 제거할 거야. 인류는 이제 끝났어. 우린 다 죽을 거야. 근데 저는 이 와중에 다음 주에 피검사랑 임플란트 예약 해놓았어요. 오래 살고 싶어서... 그리고 저도 무인매장을 좋아해요. I hate people.